

2012. 10. 21.

성명	
수험번호	
감독관 확인	

제28회 KBS 한국어능력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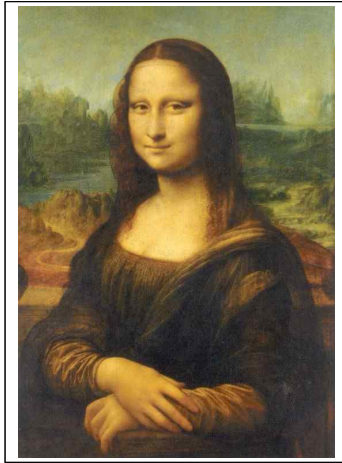
- 문제지와 답안지 모두 성명,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와 함께 문제지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 본 시험지를 절취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본 시험의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 · 복사 · 복제 · 출판 · 강의하는 행위와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문항(100문항)

영역	문항
듣기·말하기	1 ~ 15
어휘·어법	16 ~ 45
쓰기	46 ~ 50
창안	51 ~ 60
읽기	61 ~ 90
국어 문화	91 ~ 100

[듣기·말하기] (1번~15번)

1. 회화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모나리자의 미소에서 웃음을 절제하려는 인상을 읽을 수 있다.
- ② 모나리자의 눈썹은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워졌다.
- ③ 머리채의 흐릿한 윤곽은 모나리자의 정적인 느낌을 더해 준다.
- ④ 배경에 있는 두 풍경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 ⑤ 드레스 무늬에 담긴 의미는 두 개의 풍경과 관련이 있다.

2. 등장인물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차장: 집에서 아내를 지배해야 바깥일을 잘 할 수 있다.
- ② 강 과장: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 ③ 강 과장: 아내는 남편보다 더 출세해서는 안 된다.
- ④ 차 대리: 능력 있는 여성은 순종적인 아내가 되기 어렵다.
- ⑤ 차 대리: 요즘 시대에 수직적인 부부 관계는 존재하기 어렵다.

3. 고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총명한 사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상의 상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 ② 상대방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 ③ 위대한 성인의 삶을 귀감으로 삼는 사람
- ④ 스스로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 ⑤ 궁극적인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삼는 사람

4. 시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회에 대한 소망 ② 후회 없는 순수한 사랑 ③ 순수한 자연에 대한 동경
- ④ 봄을 애타게 그리는 마음 ⑤ 이별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

5. 강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인간의 기억력은 점점 마비되고 있다.
- ② 시계는 인간이 시간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 ③ 택시 운전사들은 내비게이션 사용으로 인해 운전 능력이 떨어졌다.
- ④ 기술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인간을 소외시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 ⑤ 기술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감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6. 연설자의 마지막 말을 듣고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기르라는 것이군.
- ② 주변의 상황에 따라 처세를 달리하는 태도를 기르라는 것이군.
- ③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며 동요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라는 것이군.
- ④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라는 것이군.
- 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행동을 하는 태도를 기르라는 것이군.

7. 연설자가 사용한 말하기 전략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예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ㄴ.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연설의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다. ㄷ. 공식적 통계 수치를 인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ㄹ. 중국의 고사를 비판하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8. 강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나 메시지’ 화법과 ‘너 메시지’ 화법은 인간관계와 관련한 언어적 표현 방법이다.
- ② ‘나 메시지’ 화법은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을 질책하는 언어적 표현 방법이다.
- ③ ‘나 메시지’ 화법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언어적 표현 방법이다.
- ④ ‘너 메시지’ 화법은 말하는 사람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⑤ ‘너 메시지’ 화법은 상대방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9. ‘나 메시지’ 화법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아버지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p>[상황] 아버지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어린 아들의 행위를 보고 있다.</p> <p>아버지: ()</p>

- ① 아빠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어린이를 참 좋아한다.
- ②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아빠가 다니는 길이 많이 더러워지겠구나.
- ③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니 아빠는 정말 창피하구나.
- ④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길이 더러워지니 아빠는 청소하는 분이 힘들까 걱정이구나.
- 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아들은 더욱 착한 어린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10. 강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므로 태양의 고도가 변화하게 된다.
- ② 태양 고도의 변화는 위도가 높을수록 커지고 위도가 낮을수록 작아진다.
- ③ 극지방과 적도 지방의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차이보다 작다.
- ④ 우리나라는 1년을 통틀어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거의 균형을 이룬다.
- ⑤ 우리나라의 4계절은 태양의 고도, 대륙과 해양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11. 강연자가 사용한 말하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설명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 ② 수수께끼를 사용하여 강연을 듣는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③ 설명 대상의 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구체적 현상에 대한 상반된 원리를 제시하여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고 있다.
- ⑤ 생활 속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신이 말하려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2.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상속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② 금융 민원 센터를 통해 빚이나 상속 받을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상속 포기’ 각서나 ‘한정 승인’ 신청서는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④ 유산 ‘한정 승인’을 신청하면 갚아야 할 빚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 ⑤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빚은 상속된다.

13. 대화의 마지막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_____ < 보 기 > _____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제 친구는 _____.

- ①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후에 ‘상속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군요.
- ②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군요.
- ③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후에 ‘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군요.
- ④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군요.
- ⑤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후에 ‘상속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군요.

14. 뉴스 논평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원래 유럽의 전통에서 온 말이다.
- ② 미국의 사회 지도층은 미국 내 기부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 ③ 미국에서는 개인보다는 기업의 자금으로 기부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 ④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는 비자발적이고 비정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 ⑤ 우리나라는 사회지도층의 무관심으로 인해 기부 문화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 뉴스 논평의 마지막에 이어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지도층보다 일반 시민들의 기부 문화 활성화에 힘써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기부 행위가 말로 기부 문화를 양적,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② 시민 모두가 기부에 동참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때에만 기부하는 행위는 부의 환원이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③ 무엇보다 사회 지도층의 모범적 기부 행위가 많아져야 합니다. 사회 지도층의 모범적 기부 행위는 나아가 일반 시민들에 의한 기부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④ 기부는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보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 ⑤ 기부는 잘 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가 기부에 동참할 때, 기부의 참된 가치가 빛을 발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휘·어법] (16번~45번)

16. 밑줄 친 말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물건은 팬드리를 보니 공이 많이 들었구나. → 물건의 만들어진 모양새
- ② 내가 가널 쪽으로 지나려 하자 그가 앞을 가로막았다. → 사방의 중심이 되는 한가운데
- ③ 그는 자기의 깎냥을 잘 알고 있었다. → 스스로 일을 헤아림. 또는 헤아릴 수 있는 능력
- ④ 바람은 불지 않았으나 낙엽이 시나브로 쌓이고 있었다. →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 ⑤ 세상 이치는 모를 것이 없지만 실체는 매사에 아주 손방이다. → 아주 할 줄 모르는 솜씨

17.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김 선생에게서 창을 사사(師事)하였다.
- ② 범죄 집단을 비호(庇護)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③ 그 물건의 부피를 정확히 계측(計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 ④ 이 연구소를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개발의 산실(産室)로 키우겠다.
- ⑤ 그 시에는 따뜻한 감정으로 발연(勃然)한 시인의 정서가 담겨 있다.

18. 밑줄 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의 의미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들마에 손님들이 몰려왔다. → 장사가 시작될 무렵
- ② 그가 떠난 지 달포가량 지났다. →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 ③ 하오의 기울어진 햇살이 집안으로 뿌옇게 스며들고 있었다. → 오후
- ④ 푸른빛이 도는 어스름 속에 검게 드러난 도시의 윤곽을 보았다. → 조금 어두운 때
- ⑤ 집을 떠난 지 며칠 안 되었지만, 나는 해포가 넘는 것 같았다. → 한 해가 조금 넘는 동안

19.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격자 명단이 과 사무실 알림판에 계시(啓示)되었다.
- ② 이것은 선사 시대의 생활상을 재현(再現)한 전시물이다.
- ③ 나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곤혹(困惑)스러웠다.
- ④ 그들의 잔혹한 통치 정책은 세계에서 유례(類例)를 찾기 힘든 것이다.
- ⑤ 그는 친구의 도움으로 전쟁터에서 겨우 목숨을 보전(保全)할 수 있었다.

20.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도 시험 성적 때문에 경중경중 가슴을 졸였다.
- ② 그 소년은 손톱을 질경질경 씹으며 몇 걸음 물러났다.
- ③ 농부는 모내기를 하려고 못자리에서 모를 모짜모짜 뽑았다.
- ④ 몇몇 집안이 얼키설키 인척 관계를 맺어 권력을 독점하였다.
- ⑤ 부엌으로 들어서는데 딸각딸각 현관문에 열쇠 돌리는 소리가 난다.

21.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 ① 그 일은 힘에 붙인다.
- ② 이 생선은 가시를 발라내기가 쉽지 않다.
- ③ 우리는 산 중턱의 그늘에서 한창 동안 쉬었다.
- ④ 그는 소설을 거듭 고쳐 쓰다가 드디어 퇴고했다.
- ⑤ 고향에 계시던 선친께서 친히 서울로 올라오셨다.

22. '세로 3번'에 들어갈 단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고유어가 아닌 것은?

1 보	슬	1비			2	<가로 열쇠> 1. 가늘게 내리는 비 2.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김. 3.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 또는 그 장비 4. 서로 허물없이 가깝다.
				3		<세로 열쇠> 1. 여럿이 모두 비슷하게 2.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설비한 곳 3. 사물의 존재 의의나 가치를 알려주지 아니하다. 4. 고깔과 장삼을 걸치고 복채를 쥐고 추는 민속춤
		2				
	4승					
	4무	간	하	다		

- ① 넘보다 ② 알보다 ③ 깔보다 ④ 낮잡다 ⑤ 흥보다

23. 밑줄 친 단어 중, <보기>의 ㉠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보 기 >

그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터에 남 걱정을 한다.

- ① 잠이 막 들려던 차에 전화가 왔다.
- ② 급한 마당에 주저하고 말고가 없었다.
- ③ 집에 가려던 찰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 ④ 어제는 눈이 오는 바람에 길이 미끄러웠다.
- ⑤ 난 집을 나온 후 편한 잠을 자 본 적이 없다.

24. <보기>의 밑줄 친 단어와 의미상 가장 관계 깊은 것은?

< 보 기 >

그동안 진 신세를 고마워하며 빈말로라도 어서어서 돈 벌어서 은혜를 갚겠노라 하고 떠난 친구들이 있었다.

- ① 눌언(訥言) ② 실언(失言) ③ 독언(獨言)
- ④ 망언(妄言) ⑤ 허언(虛言)

25. <보기>의 ㉠~㉤ 중, 다른 것과 의미 사이의 관련이 없는 것은?

— < 보 기 > —

- 내 동생은 은행에 적금을 ㉠붓고 있다.
- 어머니는 냄비에 물을 ㉡붓고 끓이셨다.
- 나는 편도선이 ㉢부어서 말하기가 어려웠다.
- 아버지는 모판에 배추씨를 열심히 ㉣붓고 계셨다.
- 소년은 수평선에 눈을 ㉤부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6. <보기>의 ㉠~㉣에 해당하는 한자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 < 보 기 > —

- 산후에 몸을 잘 ㉠조리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 그는 큰 행사에서도 말을 ㉡조리 있게 하였다.
- 그녀는 ㉢조리로 쌀을 일어 밥을 지었다.

- | | ㉠ | ㉡ | ㉢ |
|---|----|----|----|
| ① | 操履 | 調理 | 條理 |
| ② | 調理 | 條理 | 箒籬 |
| ③ | 調理 | 條理 | 操履 |
| ④ | 條理 | 調理 | 箒籬 |
| ⑤ | 條理 | 調理 | 操履 |

27. 밑줄 친 말의 한자 병기가 잘못된 것은?

- ① 새로운 경쟁 체제가 구축(構築)되었다.
- ② 그의 인생은 술한 도전과 좌절로 점철(點綴)돼 왔다.
- ③ 동물의 세계에도 엄격한 질서(秩序)가 있기 마련이다.
- ④ 그는 마감 시간에 임박(臨迫)해서야 기사를 넘기곤 한다.
- ⑤ 판소리는 전승되는 설화에 기반(棋盤)을 두고 형성되었다.

28. 속담 ‘씩어도 준치’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모기 보고 칼 빼기
- ②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③ 산 개 새끼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 ④ 뿔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 ⑤ 부자는 망해도 삼 년 먹을 것이 있다.

29.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끼리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주마간산(走馬看山) - 수박 겉핥기.
- ② 하석상대(下石上臺) - 언 밭에 오줌 누기.
- ③ 금지옥엽(金枝玉葉) - 쥐면 꺼질까 불면 날까.
- ④ 방약무인(傍若無人) -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
- ⑤ 유유상종(類類相從) - 가재는 게 편이요 초록은 한빛이라.

30. 밑줄 친 단어를 순화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레자(→인조 가죽)로 만든 옷을 입었다.
- ② 그들은 누가 보아도 잉꼬부부(→원앙 부부)이다.
- ③ 네 의견은 논쟁의 핀트(→초점)에서 어긋나 있다.
- ④ 우리는 전에 갔던 고수부지(→나루터)에서 만났다.
- ⑤ 이 순댓국에는 다대기(→다진 양념)를 많이 넣었다.

31. <보기>의 규정에 따를 때, 부사형의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한글 맞춤법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① 의젓이
- ② 급급히
- ③ 엄격히
- ④ 튼튼히
- ⑤ 정결히

32. 밑줄 친 단어가 <보기>의 규정과 관련이 없는 것은?

< 보 기 >

한글 맞춤법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엇-’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아	가	서었다	섰다

- ①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어서 가자.
- ② 지각하지 않으려면 어서 내 차에 타.
- ③ 누나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 ④ 우리는 나무에서 과일을 하나씩 따 갔다.
- ⑤ 다리를 건넜으니 이제 앞으로 곧장 가거라.

33. <보기>에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 단어가 아닌 것은?

< 보 기 >

한글 맞춤법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ㅌ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 ① 숟가락
- ② 잔주름
- ③ 여닫이
- ④ 이튿날
- ⑤ 반진고리

34.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 ① 수일내로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 ②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 ③ 그 물건이 얼마 짜리인지 아무도 몰랐다.
- ④ 축제 기간중에는 기숙사를 개방하기도 하였다.
- ⑤ 그를 다시 만난 것은 그날 이후 삼 년 만이었다.

35. 밑줄 친 말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가게 점원은 여전히 판청을 피우고 있었다.
- ② 봉순이는 연신 옷고름으로 눈물을 닦아 냈다.
- ③ 아이를 그곳에 혼자 보내는 것이 꺼림직했다.
- ④ 사범이 널빤지 다섯 장을 겹쳐 놓고 격파하였다.
- ⑤ 사장 이름을 친구나 되듯 부르며 으스대곤 했어요.

36. 문장 표현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도시 재개발은 안정적인 주택 확보와 환경을 개선하려고 추진되고 있다. ② 그렇지만 도시를 재개발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전통이 파괴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③ 반면에 원주민들 대부분이 재개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도 도시 재개발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④ 재개발이 가져오는 변화는 절대 주거 환경의 변화로 그치게 된다. ⑤ 이러한 현상은 원치 않는 재개발로 오랫동안 살아온 곳을 떠나야 하는 원주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37. 밑줄 친 번역투의 표현을 잘못 고친 것은?

- ① 그는 선각자에 다름 아니다. → 선각자라 할 만하다.
- ② 감기에 걸린 아이에게는 많은 양의 물을 주십시오. → 물을 많이
- ③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 주의해야 한다.
- ④ 겨울철 화재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매우 중요하다.
- ⑤ 감독님은 어머니에게서 사정을 들은 다음 그를 용서했다. → 어머니로부터

38. 문장의 의미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 ① 그들은 차려 놓은 음식을 다 먹지 않았다.
- ② 그녀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만나고 싶어 한다.
- ③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본능에 가깝다.
- ④ 그는 순박하고 꾸밈이 없는 시골의 사람들을 좋아한다.
- ⑤ 어려운 처지에 있던 할머니의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39. <보기>에서 설명하는 단어의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 보 기 >

우리가 쓰는 단어들 중에는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명사+동사의 명사형’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여기에 속하는 단어의 예로는 ‘고기잡이’를 들 수 있다.

- ① 눈가림
- ② 끝맺음
- ③ 줄넘기
- ④ 눈높이
- ⑤ 글짓기

40. <보기>를 참고할 때 명령형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보 기 >

명령형은 직접 명령형과 간접 명령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명령형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때 쓰이며, 용언의 어간에 ‘-아라/-어라’를 결합하여 실현한다. 반면 간접 명령형은 인쇄 매체를 통해 청자에게 전달될 때나, 화자가 3인칭으로서 단체나 복수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불특정 청자에게 명령의 뜻을 나타낼 때 쓰이며, 용언의 어간에 ‘-(으)라’를 결합하여 실현한다.

- ①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 ② 고장 난 시계를 고쳐라.
- ③ 이제는 고향에 돌아와라.
- ④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어라.
- ⑤ 다음 중 알맞은 답을 고르라.

41. 밑줄 친 말 중, <보기>의 ㉠의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 보 기 >

어근은 단어를 분석했을 때에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가장 중심이 되는 형태소를 말한다. 어근은 규칙 어근과 ㉠불규칙 어근으로 다시 분류되는데, 불규칙 어근은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 품사 분류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넉넉하다’의 어근인 ‘넉넉’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한다.

- ① 밖에 비해 네 방 안은 따뜻하다.
- ② 자고 나니 이제 머리가 개운하다.
- ③ 소화가 되지 않아 속이 답답하다.
- ④ 요새는 이상하게 일손이 부족하다.
- ⑤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다.

42. 문장 부호의 사용이 잘못된 것은?

- ① 너는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② 시장에 가서 사과·배·복숭아를 샀다.
- ③ 3·1 운동(1919)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다. ④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를 사군자라고 한다.
- 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았다.

43. 밑줄 친 부분의 소리 길이가 긴 것은?

- ① 그녀의 말투는 다분히 경박(輕薄)한 편이다.
- ② 요즘은 경기(景氣)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 ③ 경기도(京畿道) 인구가 서울 인구를 앞질렀다.
- ④ 경상도(慶尙道) 지역에는 유명한 사찰이 많다.
- ⑤ 대한민국의 경제(經濟) 영토가 더욱 확대되었다.

44. 외래어 표기가 올바른 것은?

- ① 스태프 ② 리더쉽 ③ 로킷 ④ 타겟 ⑤ 화일

45. 대한민국의 산 이름이다. 로마자 표기가 틀린 것은?

- ① 북한산 Bukhansan ② 월악산 Weoraksan ③ 금수산 Geumsusan
- ④ 설봉산 Seolbongsan ⑤ 치악산 Chiaksan

[쓰기] (46번~50번)

[46-50]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6.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을 논하게 된 배경을 검토한다. •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를 예측한다. •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한다.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대내외적 의의를 검토한다.① •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이 필요한 이유를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② •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예측한다.③ •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의 구체적 근거를 국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다.④ •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 근거를 마련한다.⑤

47. <보기>에 제시된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여론

연도	찬성 (%)	반대 (%)
2009년	63.2%	36.8%
2011년	71.1%	28.9%

(나) 관련 선행 연구

한글날은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면서 공휴일로 정했으나, 1990년 기념일로 바뀐 후 한글 경시 풍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글 경시 풍조의 해결을 위해 한글날을 2006년부터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전환하였다. 공휴일로 바뀌었다면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겠지만, 국경일로 전환이었기에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다) 국어 전문가 인터뷰 자료

○ “우리나라는 현재 국어 기본법에 의해 국어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하며 한글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국어 정책의 일관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나국어 (42세, ○○대 국어교육과 교수)

○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묻는 설문에서 49.8%의 응답자가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한글이 창제 및 반포된 날을 기념하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 화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도 37.9%나 있었습니다.”

-나박사 (35세, ○○ 연구소 선임 연구원)

- ①(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②(나):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문제점을 부각한다.
- ③(다):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이 국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 ④(가)+(나):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을 찬성하는 사회적 여론이 지배적임을 강조한다.
- ⑤(나)+(다):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장한다.

48. 위의 계획과 자료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의 수정 및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요>	
I. 서론	㉠
II.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을 논하게 된 배경	
1.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대내외적 가치	
2.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국가적 의의	㉡
III.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쟁점 검토	㉢
1.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찬성과 반대 의견	
2. 한글날 공휴일 지정 찬성 의견에 대한 옹호	
IV.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긍정적 효과	
1.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	
2.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사회·문화적 효과	
3.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사회적 여론	㉣
4.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
V. 결론	

- ① ㉠에는 한글날의 가치와 한글날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시한다.
- ② ㉡은 ‘대내외적 가치’와 관련하여 II-1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삭제한다.
- ③ ㉢에는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글날 공휴일 지정 찬성 의견에 대한 반박’을 추가한다.
- ④ ㉣은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긍정적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관련성이 깊은 II로 이동한다.
- ⑤ ㉤은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사회·문화적 효과’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IV-2의 자료로 활용한다.

[49-50] 위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글을 우리의 민족성을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 유산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1%가 찬성하였다. 실제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우선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은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

정될 때 늘어나는 휴일 1일당 총 편익은 4조 6,092억 원, 민간 소비 지출 증가에 따른 총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8,442억 원으로 추정되며, 신규 고용 창출 효과는 18,330명으로 추정된다.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과 동시에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더라도 기업체의 순편익은 4조 3,196억 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근거로 ㉑을(를)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휴일 수 증가로 인한 노동 생산성 약화 역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㉒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그것 자체로 국민들에게 한글의 가치를 ㉓인식할 수 있고, 더불어 한글 경시 풍조의 문제를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㉔한글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글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 개최를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49.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㉑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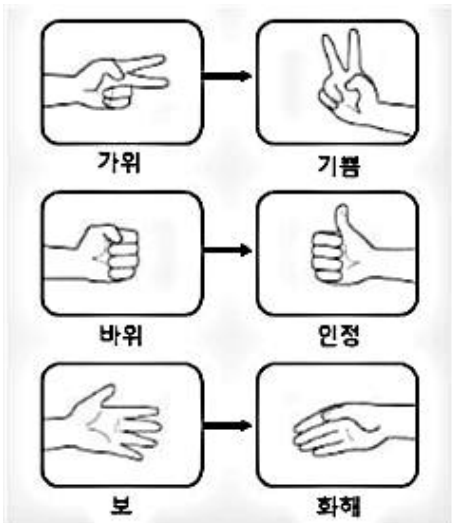
- ① 내수 경기의 불안정
- ② 기업체의 수출 감소
- ③ 기업체의 경제적 손실
- ④ 노동자의 스트레스 가중
- ⑤ 노동자의 근무 만족도 저하

50. ㉑~㉔을 수정하려고 할 때, 그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을 위하여 ‘특히’로 수정한다.
- ② ㉒: 호응을 고려하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로 수정한다.
- ③ ㉓: 문맥에 적합한 단어가 아니므로 ‘미비’로 수정한다.
- ④ ㉔: 자연스러운 문장의 흐름을 위해 ‘인식하게 할’로 수정한다.
- ⑤ ㉔: 내용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창안] (51번~60번)

51. 다음 그림을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곧 당신의 기쁨입니다.
- ②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 긍정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③ 패배의 시련을 경험한 사람에게 더 큰 승리의 기쁨이 다가옵니다.
- ④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상대를 인정해야 합니다.
- ⑤ 진정한 화해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52. 교통 표지판을 활용하여 <보기>의 광고를 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부패의 유혹은 위험하고 보호받지 못하며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부패 없는 바른 길로 다함께 나아갑시다.
 부패의 길은 죽음, 청렴의 길은 생명입니다.
 부패의 길로는 들어서지 맙시다.

- ①  유턴 금지 ②  위험 ③  좌·우회전 ④  천천히 ⑤  진입 금지

53. <보기 2>의 ㉠~㉣ 중, <보기 1>의 ‘쓰다’와 의미가 유사한 것은?

< 보 기 1 >

그는 요즘 신문에 연재소설을 쓰고 있다.

< 보 기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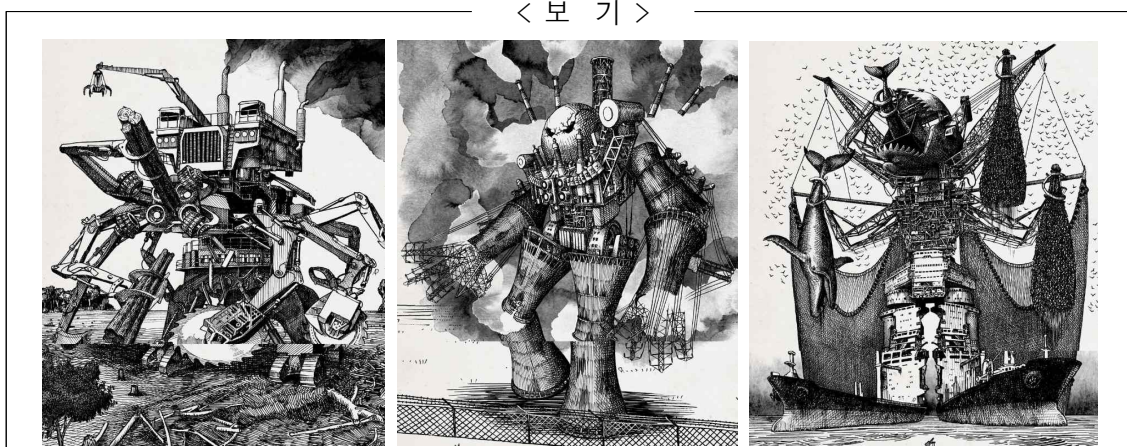
달아도 시원찮을 이 나이에 벌써 / 밥이 쓰다 / 돈을 쓰고 머리를 쓰고 손을 쓰고 말을 쓰고
 수를 쓰고 몸을 쓰고 힘을 ㉠쓰고 억지를 쓰고 색을 쓰고 글을 쓰고 안경을 ㉡쓰고 모자를 쓰고
 약을 ㉢쓰고 관을 쓰고 쓰고 싶어 별루무 짓을 다 쓰고 쓰다 / 쓰는 것에 지쳐 밥이 먼저 쓰다

오랜 강사 생활을 접고 뉴질랜드로 날아가 버린 선배의 안부를 묻다 먹는 밥이 ㉣쓰고 / 결혼도 잊고 죽어라 글만 쓰다 폐암으로 죽은 젊은 문학평론가를 생각하며 먹는 밥이 쓰다 / 찌개 그릇에 고개를 떨구며 혼자 먹는 밥이 쓰다 / 쓴 밥을 몸에 좋은 약이라 생각하며 / 꼭 꼭 씹어 삼키는 밥이 쓰다 / 밥이 쓰다 / 세상을 덜 쓰면서 살라고, / 때뭇한 눈이 머리를 쓰다듣는 저녁 / 목메인 밥을 ㉤쓰다

- 정끝별, ‘밥이 쓰다’ 중에서

- ① ㉠ ② ㉡ ③ ㉢ ④ ㉣ ⑤ ㉤

54. <보기>의 그림을 모두 활용하여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 누구의 책임입니까?
- ② 아름답던 산이 개발로 인해 점점 죽어갑니다.
- ③ 동물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포획은 불법입니다.
- ④ 대기 오염, 우리가 숨 쉴 공간이 사라져 갑니다.
- ⑤ 문명에 의한 파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55. <조건>을 반영하여 <기사문>의 제목을 지으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기사문> —

증시의 유동성을 가늠하는 거래 대금은 전체 시가 총액 대비 비중이 지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의 회복세를 놓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체 유통 시가 총액 대비 비중은 0.6% 수준으로 지난 2000년 1.14%의 평균 거래 대금 비중을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금융 투자 업계는 거래 대금 급감이 극도로 불안한 투자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조 건> —

- 기사문의 중심 내용을 반영할 것.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증시, 거래 대금 감소 고비될 듯
- ② 거래 대금, 어두운 증시 밝혀주나
- ③ 최저 수준의 평균 시가 총액 위기
- ④ 주식으로 돈 벌고, 인간관계 멀어져
- ⑤ 돈 가뭄 겪는 증시, 불안한 투자 심리

56.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보기>의 제목을 지으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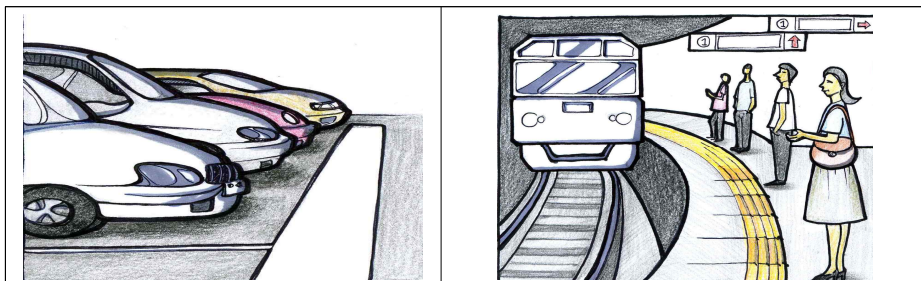


— <조 건> —

- 두 그림에서 공통된 속성을 도출하여 활용할 것.
- 공익 광고에 들어갈 제목을 작성할 것.

- ① 음주,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 ② 발상의 전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 ③ 나의 이기심,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 ④ 함께 하는 사회, 다른 사람도 생각합시다.
- ⑤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 양보가 미덕입니다.

57. 다음 그림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구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함께 하는 사회가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앞에 놓인 선들을 지워 갑시다.
- ② 우리는 모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적인 선을 넘을 때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③ 우리 사회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사회는 질서와 안정이 유지됩니다.
- ④ 누구에게나 보호받고 싶은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젠 우리 사회 모두가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 ⑤ 공중도덕을 지키는 사회는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58. '대한 라면'의 조리 방법을 활용하여 창작한 사행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p>① 대한의 대표 라면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라면의 신기원!
면발의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p> <p>③ 대한 국민의 대표 먹거리
한 맷힌 맛의 절규!
라볶이까지 요리할 수 있는
면발의 혁명을 보여드립니다.</p> <p>⑤ 대한 라면이
한국의 매운 맛을 보여드립니다.
라면이 다 똑같다고요?
면발부터 비교해 보세요.</p> | <p>② 대자연의 정기를 품은 라면
한 번 먹으면 중독되는 맛의 향연!
라면은 1분만 끓이세요.
면과 스프를 한 번에 넣고!</p> <p>④ 대식가도 만족하는 양!
한 입 먹어보면 빠져드는,
라면을 드세요.
면발부터 다른 새로운 라면! 대한 라면!</p> |
|--|--|

59. <조건>을 반영하여 <기사문>의 제목을 지으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기사문>

유로존에서 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해외 이민 물결이 가속화되고 있다. OECD의 연간 이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의 해외 이민자 수가 전년 대비 완만한 상승 곡선을 보였다. 성장 둔화 내지 침체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고용 시장이 급랭된 여파이다.

특히 독일행 이민자 수가 그리스는 80% 이상, 스페인은 50% 이상,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는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 호황을 누리는 독일이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해외 인재 채용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유로존이 이민 절차를 개선한다면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 건>
- 기사문의 핵심 내용을 반영할 것.
 - 비유를 활용하여 제목을 장안할 것.

- ① 해외 이민 오행제!
- ② 위기 탈출! 독일이 간다.
- ③ 유로존 위기, 이민만이 살길!
- ④ 구직 이민, 유로존 위기 구한다!
- ⑤ 이민, 유로존 위기의 새로운 양상!

60. <보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한다. <조건>을 반영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이다. 한국 전쟁 이후 고생 끝에 경제를 일으키고 자식 농사를 마쳤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부족한 노후 자금과 사기, 외로움 등 여생을 위협하는 요소들뿐이다. 일본 사회를 강타했던 노인 문제, 즉 노인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힘들거나 사회와 고립돼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되고 있는 실태를 취재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 <조 건>
- <보기>의 핵심 내용을 반영할 것.
 - 한자어를 활용한 조어(造語)를 사용할 것.

- ① 노후 난민의 시대
- ② 고령 사회의 도래
- ③ 고령 세대에게 바란다
- ④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의 고민
- ⑤ 사회가 소외 계층을 방치한다

[읽기] (61번~90번)

[61~6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꽃꽂하게 걷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출추는 사람처럼 보였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는 앉았다 일어서듯 다리를 구부렸고
 그때마다 뒤통은 반쯤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 요란하고 기이한 걸음을
 지하철 역사가 적막해지도록 조용하게 걸었다.
 어깨에 ㉡매달린 가방도
 함께 소리 죽여 힘차게 흔들렸다.
 ㉢못 걷는 다리 하나를 위하여
 ㉣온몸이 다리가 되어 흔들어 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기둥이 되어 우람하게 서 있는데
 그 ㉤뻑뻑한 기둥 사이를
 그만 홀로 팔랑팔랑 지나가고 있었다.

- 김기택, '다리 저는 사람'

61.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② 생활 주변에서 관찰한 내용을 시의 소재로 삼고 있다.
- ③ 대조적 속성을 지닌 시적 대상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다.
- ④ 시적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내면적 갈등이 제시되어 있다.
- ⑤ 의태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6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시적 대상의 아름다운 외양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② ㉡: 시적 대상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 시적 대상의 장애 부위인 동시에 사회의 부정적 요소를 의미한다.
- ④ ㉣: 시적 대상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⑤ ㉤: 시적 대상과 같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고달픈 현실을 의미한다.

[63-6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봉구는 푸우 한숨 섞인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멀고 회한에 가득한 눈으로 산자락 모퉁이 ㉠옛날 창평 고씨(昌平 高氏) 제각이 있던 편편한 곳에 즐비하게 늘어선 매운탕 집 주막들을 바라보았다. 지난봄 까지만 해도 선산을 버리고는 죽어도 방울채를 떠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집을 뜯어 옮기고 그대로 눌러앉은 박팔만이네를 제하고, 다섯 집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열한 집으로 늘어났다.

새로 생긴 방울채 매운탕 집들 앞으로는 아카시아 숲이 휘윽하게 울타리처럼 둘러쳐져 있고 아카시아 숲 너머로는 호남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좁장한 신작로가 뻗쳐 들어오고, 그 길을 따라 낚시꾼들이 타고 온 자가용 차들이 집 둘레 여기저기에 번쩍번쩍 햇빛을 쪼개어 날렸다. ㉡봉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슬프고 어쭙잖게만 보였다.

말이 보상금이지, 보상 가격을 책정해 놓고도 일이 년 뒤에야 지불을 받고 보니, 이미 인근 농토 값은 몇 배로 뛰어올라 대토(代土) 잡기에 어려웠고, 도회지로 나가서 살자 해도 전세방을 얻고 나면 자전거 하나 사기도 힘든지라, 아무 짓도 못 하고 솔레솔레 곱감 꼬치 빼먹듯 하다가는 두 손바닥 탈탈 털고 영락 없이 알거지가 되고 만 집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봉구 그 자신도 보상금 받아 가지고 읍에 나가서 버스 정류장 옆에 가게를 얻어 쌀집을 냈으나 어찌 된 셈인지 남는 것은 없고 옴니암니 본전만 까먹게 되어 전셋돈이나마 가까스로 건져 ㉢다시 방울채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지붕 위에서 낚시질을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합니다.”

빨간 모자 낚시꾼은 뚜벅뚜벅 곧잘 말을 걸어왔다.

“사람들꺼정 한꺼번에 잤겨 뿐 거이 더 마음 아프구먼유.”

“㉣누가 빠져 죽었나요?”

“죽은 거나 매한가지라우. 수십 년 동안 얼굴 맞대고 정붙이고 살아온 방울채 사람들을 시방 어디에 가서 찾을 겁니까유. 살아 남은 사람들은 몇 집 안 되지라우.”

“예끼 여보슈, 난 또 무슨 소리라구!” / “선생님들은 우리 속 몰라유.”

“땀이 원망스럽겠군요.” / “으췌서유?” / “고향을 삼켜 버렸으니까요.”

“위디가유.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가 그러키 앞뒤 꼭 맥힌 명충이들이란가유? 땀이 생겨서 많은

농민들이 가뭄 모르고 농사 잘 짓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유? 우리도 그 정도는 압니다유.”

“그렇다면 됐습니다.”

“㉔그래도 고향이 없어져 뿔고 정든 사람들이 뿔뿔이 풍비박산(風飛雹散)되어야겠는디 으씨.”

“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㉕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여라우. 우리헌티 땅이 있소, 기술이 있소?”

빨간 모자가 대꾸를 해 주지 않자, 봉구는 고개를 들어 다시 매운탕 집들 위로 내리뻗은 고속도로를 바라보았다. 자동차들이 바람처럼 썹썹 내달았다.

-문순태, ‘징 소리’ 중에서

63.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심리를 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등장인물이 사건에 대한 논평을 직접 드러내며 서술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요 사건을 관찰하며 서술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객관적 입장에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64. 윗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㉑~㉕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새로운 것들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봉구의 서글픈 감정이 드러나 있군.
- ② ㉒: 타향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향해야 했던 봉구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③ ㉓: 댐 공사 중에 죽은 사람을 떠올리는 낚시꾼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④ ㉔: 댐이 건설되며 고향을 상실했던 마을 사람들의 아픔이 드러나 있군.
- ⑤ ㉕: 수몰과 동시에 마음의 안식처를 잃게 된 봉구의 처지가 드러나 있군.

65. ㉔와 관련 있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량지재(棟梁之材) ② 초동급부(樵童汲婦)
- ③ 백의종군(白衣從軍) ④ 상전벽해(桑田碧海)
- ⑤ 수간모옥(數間茅屋)

[66-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 시대 선비의 특징적인 면모는 일관주의(一貫主義)에서 잘 나타난다. 조선의 선비들은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이념을 중요시하여 이를 행동의 규범과 가치의 지향으로 여겼다. 자신과 타인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박하되 남에게는 후하게 대하는 생활 태도를 보여 주었다.

(나) 선비의 지조와 절개는 선비로서의 징표 같은 것이었다.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단단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㉑)한 인물상이며, 청빈을 미덕으로 삼아 검약을 실천하는 청빈검약(淸貧儉約)의 생활 철학을 가진 사람이 선비이다. 조선 선비에게 호화와 사치는 금기 사항이며 국가 사회의 공적(公賊)으로 치부되었을 정도였다.

(다) 선비가 지향한 가치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사항은 (㉒)의 방향성이다.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길 때에 비로소 그 배움이 의미를 갖게 된다고 인식하였으며, 실천 없는 학문의 공허함을 적대시하였다.

(라) 그 실천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의리(義理)와 명분(名分)이었다. 사람이 지켜야 할 옳은 도리인 의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따져 보아야 하는 기준이었다. 명분이란 각기 이름에 걸맞은 분수나 역할로서, 당대는 명분 사회였기 때문에 명분을 잃으면 그 사회에서 도태당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이익을 도외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선비는 일에 임하여 명분과 실리를 합치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양자의 합치가 어려워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명분을 택하는 것이 선비로서 살아남는 길이었다. 또한 의리를 지키되 인정과 조화시키려 노력했다. 의리만을 따지면 세상살이가 삭막하고 메마르기 쉽고, 인정만을 베풀면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워지므로 의리와 인정을 적절하게 보합(保合)하여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마) 나아가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부추겨 주며, (㉠)의 정신을 실천하여 공적인 일을 우선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하여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의 이상 사회, 즉 대동 사회를 내세가 아닌 현세에 건설하려는 이상을 갖고 있는 이상주의자들이 바로 선비였다. 이 점이 이 세상의 곤고함을,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보는 다른 종교와 유교와의 차별성이다. 선비는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역군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선비들은 나의 생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생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이)라는 동물 세계의 기준을 극복하려 하였으며,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차별화는 인정하되, 기본적으로는 함께 하는 사회를 대동 사회로 설정했던 것이다.

66. 윗글에서 말하는 선비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내세의 행복을 위해 현세에서 인내하고 희생한다.
- ② 인간이 가진 이성의 힘으로 감정을 누르고자 한다.
- ③ 삶의 기준이 유동적이어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한다.
- ④ 명분과 실리의 조화를 추구하지만 명분을 우위에 둔다.
- ⑤ 학문과 삶의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여 배움에 정진한다.

67. (마)에 나타난 선비의 모습이 담겨 있는 시조는?

- ① 매미가 맵다고 울고 쓰르라미가 쓰다고 우니
산나물이 맵다고 하는가, 박주가 쓰다고 하는가?
우리는 시골에 묻혀 살고 있으니 맵고 쓴 줄을 모르겠노라
- ② 잘 간다고 달리지 말 것이며 못 간다고 해서 쉬지를 말라
부디 끊어지지 말고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아껴서 쓰도록 하라
가다가 중지하면 가지 않는 것만 못하니라!
- ③ 연못에 비 뿌리고 버드나무에 안개 끼었는데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어 있는고
해질 무렵에 짝 잃은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는구나
- ④ 한 손에 막대를 쥐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늪을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서 지름길로 오는구나.
- ⑤ 네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에는 얼마만큼 차리는가
네 딸아이의 신랑감은 언제쯤 맞이하려는가
내게도 재산이 없지마는 큰일을 당하면 도와주려고 하노라

68. 윗글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외유내강(外柔內剛) ② ㉡: 실사구시(實事求是) ③ ㉢: 선공후사(先公後私)
- ④ ㉣: 공생공존(共生共存) ⑤ ㉤: 약육강식(弱肉強食)

[69-7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세기의 회화는 19세기까지와 같은 일정한 양식상의 이원적인 대립 관계에 의해 파악될 수 없는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야수파, 표현주의, 입체파, 미래파,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절대주의, 데스틸, 구성주의 등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펼쳐진 여러 회화 양식의 명칭들이다.

마티스, 드랭, 블라맹크 등 일군(一群)의 야수파 화가들은 전통적인 재현 회화의 조형 방법을 거부하고 형태의 단순화와 색채의 대담한 사용을 통해 자기 나름의 개성적인 조형 방법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서로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의식적인 운동으로서 야수파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의 회화적 특성은 이들 화가 중에서 연장자 격인 마티스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나는 모든 색깔의 명도를 높여서 내가 느꼈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순수색의 관현악으로 바꾸어 놓았다. 나는 격렬함으로 가득 찬 부드러운 심성의 야만인이었다. 나는 내가 직감적으로 본 것을 어떤 정해진 방법 없이 표현했으며 예술적이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진실을 전달했다. 나는 청록색과 주홍색 물감을 짜서 결국 다 써버리고 말았다.” 마티스의 ‘생의 환희’는 부드러운 심성의 야만인, 야수파의 회화가 갖는 유희적, 장식적 특성을 잘 드러내 준다.

표현주의는 특정 시대의 회화 양식에 대한 고유명사라기보다는 고전주의 객관적 세계의 재현과 감정의 주관적 재현에 상응하는 보편적인 개념이다. 20세기 회화에서 표현주의를 말할 때는 1905년경부터 1920년까지 독일의 다리파를 중심으로 한 키르히너, 헤켈, 놀데, 베크만, 그로즈, 디스, 코코슈카 등의 회화를 가리킨다. 이들의 작품은 형태의 왜곡과 단순화, 강렬한 색채의 사용 등에서 야수파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비관적 또는 비판적 감수성은 야수파의 쾌락주의와 명백한 차이를 보여 준다. 베크만의 ‘밤’은 이러한 경향을 대표한다.

입체파는 원근법에 근거한 환영적인 공간 재현 방식이 대상의 실재를 파악하는 진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은 실제 우리의 눈이 대상을 지각하는 방식, 즉 대상의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각도에서 파악하는 눈의 운동성에 주목함으로써 생겨났다. 이것은 화면에서 동시적인 시각을 허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대상을 ㉦, 즉 개념에 따라 구성하고 재배치하는 능력을 요구했는데, 아폴리네르는 이것을 ‘시각적 진실에서 지성에 의한 진실로 나아간 것’이라고 하였고, 이는 피카소의 ‘아비뇰의 여인들’에서 잘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의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은 세잔느와 흑인 조각이었다.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대상의 실재감을 나타내는 세잔느의 방법은 입체파의 보는 방식을 함축하고 있다.

69. 윗글에 따라 20세기 회화를 감상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야수파 회화에서 단순화된 대상과 강렬한 색채를 감상해 본다.
- ② 야수파의 쾌락주의와 표현주의의 비관적 감수성을 비교해 본다.
- ③ 입체파에서 대상을 재배치하여 실재감을 나타내는 방식을 눈여겨본다.
- ④ 20세기 회화 전반에서 전통적인 재현 회화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찾아본다.
- ⑤ 표현주의 회화에 담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 상황이 반영된 감성을 느껴 본다.

70. 윗글에 등장하는 화가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드랭은 대상의 모습을 재현하는 표현 방법을 중시했다.
- ② 피카소는 한 화면을 하나의 시각으로 보는 방식에서 벗어났다.
- ③ 베크만은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파악하는 눈의 운동성에 주목했다.
- ④ 키르히너의 작품은 야수파의 쾌락주의와 유사한 비판적 감수성이 반영되었다.
- ⑤ 마티스는 추상을 중시하는 일군(一群)의 화가들을 모아 야수파를 형성하였다.

71.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이는 대로가 아닌 아는 대로
- ② 부분인 대로가 아닌 전체인 대로
- ③ 학습한 대로가 아닌 본능적인 대로
- ④ 알고 있는 대로가 아닌 느끼는 대로
- ⑤ 실제 있는 대로가 아닌 단순화시킨 대로

[72-7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여름 한낮에 더위를 느끼고 겨울의 아침저녁에 추위를 느낀다. 덥거나 춥다는 느낌은 우리 몸과 주변 사이에서 일어나는 열전달의 양에 따라 정해진다. 겨울에는 주변에 열을 많이 빼앗겨 춥다고 느끼고, 여름에는 우리 몸의 열을 충분히 발산하지 못해 덥다고 느낀다.

물리학 교과서에는 어떤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달되는 열의 양은 두 물체의 온도 차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여름에는 체온과 주변 온도의 차이가 작아 열이 잘 발산되지 못하고, 겨울에는 그 온도 차가 커 열이 지나치게 많이 발산된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 발산되는 열의 양은 우리의 체온과 주변 온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도 많이 있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예가 목욕을 하고 나서 욕실을 나서면 갑자기 서늘해짐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물론 욕실보다 욕실 바깥에서 열을 더 많이 빼앗기기 때문이다. 욕실이나 욕실 바깥의 온도는 거의 같으므로 체온과 주변 온도의 차이는 두 경우에 비슷하다. 따라서 이 현상은 온도 차 때문에 생기는 열전달의 차이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습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다. 습도가 높은 욕실과 달리 건조한 욕실 바깥에서는 우리 몸에 묻어 있는 물기가 쉽게 증발한다. 액체가 기화해 기체가 되려면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공급돼야 하는데, 물기가 마를 때 우리 몸에서 기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액체인 물을 기체인 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체온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늘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에어컨이 켜져 있는 방에 처음 들어설 때 특히 시원하게 느끼는 것도 젖어 있던 땀이 마르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는 는 것을 보여 준다. 세계를 하나의 원칙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세계가 좀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리가 어떤 한계를 지니는지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

7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추위와 더위는 몸과 주변의 열전달의 양과 관련이 있다.
- ② 두 물체 간의 온도 차이가 크면 전달되는 열의 양도 많다.
- ③ 육질과 육질 바깥은 온도 차이보다는 습도의 차이가 크다.
- ④ 액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
- ⑤ 에어컨이 켜진 방에서 시원하게 느끼는 것은 온도 차이 때문이다.

73.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같은 현상이라도 다양한 원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 ② 무엇이든지 탐구하면 그 원인과 결과를 밝혀낼 수 있다
- ③ 세상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려면 과학이 발전해야 한다
- ④ 상황과 조건이 다른 다양한 현상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 ⑤ 세계에는 구체적 현상과 이를 설명하는 일반적 원칙이 공존하고 있다

[74~7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권력은 현실 세계에 있어서 세 가지 형태의 기준을 따르게 되며, 그 구체적인 수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억압적 권력(condign power)’은 개인이나 그룹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것을 포기하게 할 만큼 충분히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어떤 선택의 여지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복종을 얻는다. 그 의미 속에는 처벌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따라서 이러한 명칭은 적절한 느낌을 전달한다. 갤리선의 노예들은 분명히 노 젓는 일을 그만두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라도 피병을 부리면 채찍이 내리쳐질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마지못해 노 젓는 일을 계속했던 것이다.

억압적 권력은 적당히 불리한 결과를 가하거나 위협함으로써 복종을 얻어 낸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상적 권력(compensatory power)’은 긍정적인 대가를 제시함으로써 복종하는 개인에게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부여하여 복종을 얻어낸다.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리고 초보적인 농촌 경제에서는 여전히 보상이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띤다. 그리고 개인적 또는 공식적인 비난이 억압적 권력의 한 형태이듯, 칭찬 역시 보상적 권력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물론 현대 경제에서 보상적 권력의 가장 중요한 예는 금전적 보상이다. 때때로 금전적 지불에 관한 언급이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곳에서는 이 용어가 사용될 것이다.

억압적 권력과 보상적 권력의 공통점은 복종하는 개인이 자신의 복종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조종적 권력(conditional power)’은 신념을 바꿈으로써 행사된다. 설득, 교육, 선거, 대중 매체 또는 자연스럽거나 적절하거나 올바른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약은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의지에 복종하게 한다. 따라서 이때의 복종은 선택의 과정을 반영한다. 그리고 자신이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되지 않는다. 조종적 권력은 자본주의 국가이든 사회주의 국가이든 관계없이 현대의 경제적, 정치적 기능에 있어서 억압적 권력이나 보상적 권력보다 더욱 중요하다.

억압적 권력과 보상적 권력이 분명하게 의식되고 객관적인 데 반하여 조종적 권력은 주관적이다. 따라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그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도 그 권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반드시 의식할 필요는 없다. 권력과 다른 사람의 의지에 대한 복종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복종이 보다 선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호는 설득이나 교육, 선거 결과, 대중 매체 등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배양될 수 있

다. 이러한 것은 ‘외형적 조종’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종은 문화 자체에 의해 지시될 수 있다. 이때, 복종은 정상적이거나 적합하며, 전통적으로 옳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내재적 조종’이다. 외형적 조종과 내재적 조종 사이에 명백한 선을 그을 수는 없으며, 외형적 조종은 어느 정도 내재적 조종과 혼합되기 마련이다.

7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억압적 권력은 권력 주체가 권력의 대상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과한다.
- ② 억압적 권력을 통해 복종을 얻으려면 반드시 신체적 형벌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③ 현대 경제에서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보상적 권력에는 금전적 보상을 들 수 있다.
- ④ 현대 사회에서는 조종적 권력이 억압적 권력이나 보상적 권력에 비해 더욱 중시된다.
- ⑤ 조종적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은 권력에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75.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사원 김 씨는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 ② 고등학생 이 양은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 ③ 교사 박 씨는 같은 평교사이지만 나이와 경력이 많은 교사의 지시를 따랐다.
- ④ 가난한 시민 최 씨는 더 많은 복지 정책을 제안한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였다.
- ⑤ 대학생 조 씨는 더운 여름이었지만 공익 광고를 떠올리며 냉방기 사용을 자제하였다.

[76~7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터넷 서비스 가입 약관

제1조

이 약관은 초고속 인터넷 온라인 가입 센터(이하 “회사”라 한다.)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 (1)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을 포함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이 약관의 내용은 홈페이지 화면에 온라인으로 게시하거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회원과 이용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2)와 같은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후에도 거부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9조

- (1)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아이디어와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어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5조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온라인을 통한 해지 절차를 통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이용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종료하거나 취소해야만 합니다. 서비스 이용의 취소 또는 철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에 대하여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
-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7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약관의 설정 목적
- ② 약관의 효력 발생 조건
- ③ 변경된 약관의 고지 방법
- ④ 회사의 개인 정보 관리 의무
- ⑤ 이용 계약 해지의 방법

77. 윗글의 각 조항을 비판적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2조 (2) 회원의 약관 이해 여부와는 관계없이, 회사의 행정 편의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 ② 제2조 (4) 약관이 변경된 경우, 회원이 약관 변경 10일 이내에 반드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③ 제9조 (1)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라는 모호한 문구로 인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회사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 ④ 제9조 (2) 회사 측의 실수로 인한 아이디어와 비밀번호의 누출과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⑤ 제15조 (2) 군에 입대하게 된 회원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오랜 기간 입원한 회원의 경우, 뜻하지 않게 서비스 이용을 제한당할 수 있다.

78. 다음 설명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캠코더 사용 설명서

■ 배터리 사용 안내

- 전원이 꺼져도 날짜, 시간 등의 기본 설정 값이 유지되도록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단, 충전식 내장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에는 설정된 값이 초기화됩니다.
- 캠코더에 전원 공급기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 또는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동안에는 충전식 내장 배터리가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약 2주간 캠코더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충전식 내장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됩니다. 이러한 경우 캠코더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전원 공급기를 사용하여 약 2시간 정도 충전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동영상 촬영 중 일시 정지 기능

본 캠코더는 동영상 촬영 중 원하지 않는 장면에서 촬영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시 정지]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촬영이 일시 중지되고, 같은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전 촬영분에 이어 계속 촬영됩니다.

▣ 동영상 촬영 시간 (단위: 분)

해상도	화질	내장 메모리		
		8GB	16GB	32GB
720/60p	최고급	84	175	355
	고급	113	233	472
	표준	168	348	705

- ① 2시간 동안 동영상 촬영을 하려면, 반드시 16GB 이상의 내장 메모리를 갖춘 캠코더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내장 메모리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 기능을 사용하면 최고급 화질의 영상을 2시간 이상 촬영할 수 있다.
- ③ 배터리를 장착한 후 한 달이 지난 캠코더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날짜와 시간을 다시 설정해 주어야 한다.
- ④ 720/60p의 해상도에서 표준 화질로 촬영하면 최고급 화질로 촬영할 때보다 약 1.5배 더 오래 촬영할 수 있다.
- ⑤ 전원 공급기나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캠코더는 적어도 2주 이내에는 충전해 주어야 기본 설정 값이 지워지지 않는다.

79. 다음 전시 안내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전시 정보]

- 제목: 이것이 대중 미술이다
- 기간: 2012. 6. 2.(토)~2012. 7. 1.(일)
- 시간: 11:00~20:30 (매표 마감 20:00) *휴관일 없음
- 장소: ○○ 미술관 본관 -연령 : 전체 관람가
- 가격: 성인(만 25세~만 64세) 5,000원 / 청소년(만 13세~만 24세) 4,000원
 어린이(36개월 이상~만 12세), 65세 이상 3,000원
 36개월 미만 무료 입장 / 20인 이상 단체 관람 시 각 1,000원 할인

□ ‘팝아트를 넘어 대중 미술로’라는 주제로 상상력 넘치는 미술 세계 보여줘

○○ 문화 회관에서는 ‘팝아트를 넘어 대중 미술로’라는 주제로 기발하고, 상상력 넘치는 미술 세계를 보여주는 <이것이 대중 미술이다> 전시를 2012년 6월 2일(토)부터 7월 1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40여 명의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한국 팝아트의 최근 경향과 그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팝아트 전시는 국내에도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되어 대중들에게 익숙할 수 있으나,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팝아트가 대중 속으로 어떻게 침투, 확산, 진화되어 가는지 그 모습을 세밀하게 조명해 본다. 또한 향후 전개 상황에 대한 전망을 3개의 섹션으로 제시한다.

“K-POP & 해외 POP ART” 섹션에서는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만나보기 힘든 해외 팝아티스트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재미가 더해질 것이다.

“컬래보레이션 기업과 팝아티스트와의 만남” 섹션에서는 현대 미술 문화와 정부, 기업 등이 함께 협업하는 팝아트 작가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출판, 영화, 음악,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팝아트와 조우하는 아티스트들 또한 대중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담아내고자 한다.

“셀리브리티 아트” 섹션에서는 대중들에게 인지도 높은 작가들이 풀어내는 작품들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어 관람객에게 또 다른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 ① 고등학생 30명이 단체로 관람하려면 9만 원이 필요하겠군.
- ② 주말에는 늦게까지 전시를 하니가, 여유 있게 볼 수 있겠군.
- ③ 3개의 섹션으로 전시하니가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겠군.
- ④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 40여 명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군.
- ⑤ 팝아트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겠군.

[80-8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복용 안내문

1. 제품명: ○○○정, ○○○액

2. 전문/일반: 일반 의약품

3. 효능, 효과

콧물, 재채기, 코 막힘 증상, 두드러기, 피부 가려움증, 알레르기 결막염,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에 사용

4. 용법, 용량

○○○정은 6세 이상인 경우 복용할 수 있습니다. 1일 1회 1정(10mg)을 취침 전에 투여합니다. 만일 이상 반응에 민감한 사람일 경우 1정을 반으로 나누어 5mg씩 아침, 저녁으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액은 성인과 12세 이상의 소아는 1일 1회 10ml를 복용합니다.

2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아, 체중이 30kg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 10ml 투여,

2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아, 체중이 30kg 미만인 경우에는 1일 1회 5ml를 투여합니다. 이상 반응에 민감한 사람일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투여할 수 있습니다.

5. 사용 기간: ○○○정, ○○○액 모두 제조일로부터 36개월

6. 주의 사항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기밀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따른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해 주십시오. 또한 실온(1~30°C)에서 보관하여 주십시오. 간혹 의약품을 냉장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냉장 보관을 요하는 약품에 한하며 실온 보관인 약품들은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80. 위 안내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피부 가려움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 ② 냉장 보관을 통해 약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사람에 따라 1일 1회 또는 1일 2회 복용할 수 있다.
- ④ 〇〇〇정과 〇〇〇액 복용을 위한 간편한 안내서이다.
- ⑤ 기밀 용기 상태 그대로 보관하며, 다른 용기에 옮겨 보관하면 좋지 않다.

81. 위 안내문의 내용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입 후 보관만 잘했다면 언제든지 복용해도 되는 약이군.
- ②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으니, 쉽게 구할 수 없는 약이군.
- ③ 올해 3살인 조카는 너무 어리니까 이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군.
- ④ 우리 딸은 5살밖에 안되었지만, 〇〇〇정은 작아서 한 번에 넘길 수 있겠군.
- ⑤ 이상 반응에 민감한 어머니는 〇〇〇정을 하루 두 번, 5mg씩 드시는 것이 좋겠군.

[82-8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 타임’은 시작과 발상이 매우 흥미로운 작품임에 분명하다. 어떻게 보자면 자본도 가상의 이미지이자 상징이다. 화폐는 특히 그렇다. 어느 날 돈에 대한 약속이나 규정이 달라진다면 그 화폐는 교환 가능한 가치를 잃고 말 것이다. 우리 돈을 외국에서 쓰기 힘든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화폐나 자본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약속이다.

시간이 돈이라는 약속은 곧 시간을 많이 가져야만 한다는 강박으로 연쇄된다. 그리고 돈을 시간으로 바꾸자 돈 때문에 죽는 일은 훨씬 더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영화나 소설에서 우리는 종종 정말 절박한 순간, 돈이 모자라 생명을 잃는 순간을 본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정윤수는 아내의 수술비를 구하려다 살인을 저지르고 ‘복수는 나의 것’에서는 수술비 때문에 결국 여러 사람이 죽음을 맞는다.

시간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상상은 시계가 멈춤과 동시에 심장도 멎는다는 이미지로 구체화된다. 계급이나 계층에 대한 상상력은 구역별로 나뉜 삶이라는 설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부촌과 빈곤 지역이 나뉘고, 나뉜 구역들은 통행세를 통해 철저히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유지는 구역이 섞일 가능성의 방지이다.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부촌으로 갈 톨게이트비를 만들 수 없고 설사 그것을 번다 해도 부촌의 비싼 물가를 하루도 견딜 수 없다.

영화 ‘인 타임’은 그런 점에서 공상 과학 영화의 틀을 빌리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여기의 삶에 더 가까워 보인다. 월가를 행진하는 시위대를 내려다보며 와인을 마시는 1% 계층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영화 전반에 깔려 있으니 말이다. 감독은 계급이나 계층의 차이가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해도 여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진지한 문제를 흥미로운 상상력과 이미지로 풀어낸다.

문제는 설정의 매혹을 구체적 사건들이 뒤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화는 이 지독한 간극을 손쉽게 해결하고자 한다. 로빈 후드나 홍길동 같은 영웅적 인물의 행위로 말이다. 그러다 보니 비판 의식은 사라지고 문제적 상상력은 점점 ‘보니 앤 클라이드’ 식의 낭만적 탕진으로 흐려지고 만다.

하지만 이야말로 18세기 해결책이 아니던가? ‘로빈 후드’나 ‘홍길동전’이 18세기의 산물인 것처럼, ‘인 타임’은 먼 미래를 다루면서도 아주 오래 전 해결책을 쓰고 있다. 부자들의 시간을 훔쳐 나누는 것은 판타지라고 하기에 너무 유아적(幼兒的)이다. 결국 이 해결책은 도전적 출발과 어울리지 않는 꽤

락주의적 방관이라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 흠집을 내는 것만으로. 그리고 부유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사랑을 지탱하는 것만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

82.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치 없는 화폐, 우리의 미래 사회를 그리다
- ② 민주 사회의 새로운 가치, 유토피아를 예고하다
- ③ 여전히 불평등한 미래 사회,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논하다
- ④ 미래 사회의 새로운 영웅, 또 하나의 슈퍼 히어로 탄생하다
- ⑤ 시간이 자본이 되는 미래 사회, 부자들의 시간을 훔쳐 나누다

83. 영화의 내용과 표현 방법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작과 발상이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다.
- ② 진지한 문제를 상상력과 이미지로 흥미롭게 풀어낸다.
- ③ 미래 사회를 다루면서 과거의 해결 방법으로 마무리한다.
- ④ 돈을 시간으로 표현하여 죽는 일이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는다.
- ⑤ 미래 사회를 그린 영화이지만, 현재의 삶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8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히려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이다.
-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 소용없다.
- ③ 시작이 반이라지만 결국 마지막이 문제이다.
- ④ 말짱 도루묵이어도 다시 한 번 시도해야 한다.
- ⑤ 티끌 모아 태산이라더니 노력하면 결국 안 되는 일이 없다.

[85~86]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추이



(나)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발생(건)	231,026	240,832	220,755	214,171	213,745	211,662	215,822	231,990	226,878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건)	4.1	4	3.5	3.4	3.3	3.1	2.9	2.8	2.6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15.2	15.1	13.7	13.2	13	12.7	12.1	12	11.3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	43	40.2	39.3	40	38.6	37.4	36.4	36.6	37.8

85. (가), (나)의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은?

- 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부상자 수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② 2010년에는 그 전 3년에 비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증가하였다.
- ③ 2002년 이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 ④ 2001년에 비해 2010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 ⑤ 2002년 이후,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86. (가), (나)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부상자 비율 수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 ②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행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 ③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차량의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④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 ⑤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의 사망 비율이 여전히 높아 보행자 안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87. <보기>의 자료를 잘못 분석한 것은?

< 보 기 >

	한국 (2009)	독일 (2002)	일본 (2006)	스페인 (2003)	스웨덴 (2001)	영국 (2001)
남성						
미취학 자녀 없음	0.6	1.2	0.3	0.7	1.6	1.3
미취학 자녀 1명	3.6	5.9	2.5	4.8	6.5	6.9
미취학 자녀 2명 이상	4.7	8.4	4.1	6.9	9.0	8.3
여성						
미취학 자녀 없음	3.1	2.6	2.2	1.9	2.9	3.1
미취학 자녀 1명	16.0	14.4	11.7	11.5	13.0	16.3
미취학 자녀 2명 이상	19.7	21.2	16.6	17.2	17.2	22.2

- ① 모든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족 돌보기 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 ② 한국과 일본의 남성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족 돌보기 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다.
- ③ 모든 국가에서 미취학 자녀의 유무에 따라 가족 돌보기 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에 큰 차이가 있다.
- ④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은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가족 돌보기 시간의 사용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 ⑤ 모든 국가에서 미취학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미취학 자녀가 없을 때보다 남성의 가족 돌보기 시간 사용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88. 다음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h2 style="margin: 0;">국민연금, 안심(安心)하고 더 편하게 받으세요!</h2>
<p><input type="checkbox"/>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압류를 방지하여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 통장’의 취급 금융 기관을 11일부터 우체국 등 6개 금융 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p>	
<p>< 국민연금 안심 통장이란? ></p>	
<p>◇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기초 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자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 계좌인 ‘국민연금 안심 통장’을 공공 기관 최초로 도입(2010. 5.)하였으며 현재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음</p>	
<p>○ 국민연금 지급 전용 계좌인 ‘국민연금 안심 통장’은 노령 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든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p> <p>- 다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일시금 수급자 중 채무 불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은행을 통한 현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p>	
<p>< 은행을 통한 현금 지급 서비스 ></p>	
<p>◇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반환 일시금 청구 후 정해진 시간에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청구인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p>	
<p><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안심 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 기관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계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p> <p>○ 해당 금융 기관은 압류 및 담보 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우대 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p>	
<p><input type="checkbox"/> 관련 규정</p> <p>○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p>○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 【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p> <p>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 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 민사 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 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민사 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 금지 생계비】**
「민사 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 원을 말한다.

- ① 국민연금 중 일부를 압류당해 온 수급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군.
- ② 국민연금 안심 통장을 이용하려면 먼저 은행부터 방문하는 것이 좋겠군.
- ③ 이 보도 자료 이전에 100만 원 이하의 각종 국민연금을 압류한 것은 불법 행위였군.
- ④ 현금 지급을 한다고 하지만 반환 일시금의 경우에는 압류나 담보 제공을 피할 수 없군.
- ⑤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수급 받는 사람이라면, 50만 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군.

[89~90] 다음 보도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있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1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완전 틀니를 할 때 건강 보험 지원을 받게 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다태아 산모라 할지라도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20만 원을 더 받게 된다. 7월 이전 신청한 경우라도 다태아를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그동안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노인 완전 틀니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인 48만 7천 원만 부담하면 되고, 완전 틀니 제작 기간 동안 필요한 임시 틀니 역시 비용의 50%인 11만 원만 내면 된다.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 고소득 직장 가입자의 종합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도 개선된다.
 - 9월부터는 근로 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 가입자라도 종합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종합 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 또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 소득 외 종합 소득이 4,0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고려하여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구매 가능한 안전 상비 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 8월부터는 학대 아동 및 입양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친권 상실 청구 요청권자 범위에 가정 위탁 지원센터·아동 복지 시설·학교의 장이 추가된다.
 - 입양 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친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입양 숙려제'가 도입된다.

89. 보도 자료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쌍둥이나 다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산모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군.
- ② 경제적 어려움으로 틀니를 마련하지 못했던 노인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겠군.
- ③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라도 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겠군.
- ④ 한밤에 아이 해열제를 구하지 못해 고생했었는데, 올 겨울에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겠군.
- 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날에 바로 입양 기관에 맡기는 일은 없어지겠군.

90. 보도 자료를 읽고 질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3명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② 2012년 전반기에 틀니를 한 노인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 ③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 ④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제한은 어떻게 되는가?
- ⑤ 아동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

[국어 문화] (91번~100번)

91.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통신 언어에 대한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단위 :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통신 언어를 잘 알고 있으며 자주 사용한다.	43.4	9.8	3.3	0.6	0.4
통신 언어를 잘 알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45.8	45.5	26.9	14.8	4.6
통신 언어를 잘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다.	9.1	36.5	58.6	68.9	77.9
사용하고 싶지만 통신 언어를 잘 모른다.	1.7	7.6	10.1	13.3	12.5

- ①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통신 언어를 활발히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20대와 30대는 통신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의 비율이 잘 모르는 사람의 비율보다 높다.
- ③ 30대는 20대에 비해 통신 언어 사용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 ④ 20대가 60대 이상에게 통신 언어를 사용할 경우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통신 언어는 잘 모르지만 이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92.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헌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이 책은 조선 세종 때 편찬한 2권 1책의 중국어 학습서이다. 고려의 상인이 인삼 따위의 우리나라 특산물을 베이징에 가져가서 팔고, 그곳 특산물을 사서 귀국할 때까지의 노정을 기록하였으며, 여행이나 교역(交易) 등에 알맞은 대화를 48장 106절로 꾸몄다.

- ① 노걸대(老乞大) ② 명심보감(明心寶鑑) ③ 열하일기(熱河日記)
- ④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93. 방송 뉴스 기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내년도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인상률이 6.18%로 확정됐습니다.
 복지부는 건강 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내년에 적용할 건강 보험료를 올해보다 6.18%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건강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건강 보험료율은 현재 4.77%에서 5.08%로 바뀌게 됩니다. 월 소득이 ㉡2백만 원일 경우, 직장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3천백 원 가량 오릅니다. ㉢또 월 소득 백만 원과 3백만 원이면 각각 천5백 원과 4천6백 원 정도의 건강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20%인 식대 본인 부담률을 50%로 높여, 대학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한 끼 식사당 천 원 가량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또 무료였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 ㉣본인 부담률을 총액의 10%로 올리고, 현금으로 주고 있는 장제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① ㉠: 방송 뉴스는 기사의 후반부에 상세 설명이 있는 경우, 첫 문장에 어림수를 쓴다. 그러므로 “건강 보험료가 내년에 6%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 ② ㉠: 합성 명사를 구성하는 단어는 따로 적을 때의 표기를 기준으로 적는다. 따라서 ‘건강 보험 요율’이라고 표기하고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 ‘2백만 원일 경우’를 따로 떼어 ‘백만 원과 3백만 원일 경우’보다 앞서 언급한 이유가 불분명하므로 월 소득의 순서에 따라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 “월 소득이 백만 원이면 천5백 원, 3백만 원이면 4천6백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라고 하지 않은 것은 큰 수를 먼저 제시하는 방송 뉴스의 특성 때문이다.
- ⑤ ㉣: 관계 기관이나 관청의 시각에서 표현한 문장이다. “본인 부담금이 새로 생겨 총액의 10%를 내야 하며, 현금으로 받던 장제비는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와 같이 고치는 것이 시청자 중심 표현으로 적합하다.

94. <보기>를 참고하여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p>알01 「명사」 (1) 『생물』 조류, 파충류, 어류, 곤충 따위의 암컷이 낳는, 둥근 모양의 물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새끼나 애벌레로 부화한다.</p>	<p>알-02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1) ‘걸을 덮어 싼 것이나 딸린 것을 다 제거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작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3) ‘진짜, 알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p>

- ① ‘알탕’의 ‘알’은 01의 의미로 쓰인 것이군.
- ② ‘알 밥’의 ‘알’은 01의 의미로 쓰인 것이군.
- ③ ‘알몸’의 ‘알’은 02의 (1)번의 의미로 쓰인 것이군.
- ④ ‘알밤’의 ‘알’은 02의 (2)번의 의미로 ‘작은 밤’이라는 의미가 있겠군.
- ⑤ ‘알부자’의 ‘알’은 02의 (3)번의 의미로 ‘진짜 부자’라는 의미가 있겠군.

95.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가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이 작가는 자신의 창작 방법을 ‘고현학(考現學)’이라 이름 붙였다. 고현학은 현대인의 생활을 조직적으로 조사·연구하여 현대의 풍속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학문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이 작가의 소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고현학을 적용시킨 작품으로 유명하다. 그의 작품에서 고현학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공적인 인간의 사생활을 소설화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소설 작법을 겉으로 직접 드러내는 형태이다. 전자는 그의 작품이 실존했던 작가의 사생활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후자는 대학 노트를 끼고 경성을 배회하면서 관찰·기록한 사실을 작품에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 이청준 ② 황순원 ③ 이태준 ④ 채만식 ⑤ 박태원

9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비싸긴 해도 제주도 ㉠갈치가 맛도 있고 싱싱하다.
- 빨라지고 늘어지는 ㉡다디미 소리는 단조롭게 반복된다.
- 새치기를 하는 사람과 줄을 선 사람의 ㉢아귀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 그들은 내 말이 사실임이 드러나자 ㉣빨쫂한지(빨쫂하다) 말을 붙여 오지 않았다.
- 그 새는 ㉤나래를 풍선처럼 부풀려 올리더니 힘차게 깃을 치며 솟구쳐 올랐다.

- ① ㉠: 바닷물고기의 한 종류로 표준어 ‘갈치’의 방언이다.
 ② ㉡: ‘다듬이질’을 뜻하는 말로 표준어 ‘다듬이’의 방언이다.
 ③ ㉢: ‘자기의 욕심을 위해 다투는 일’을 뜻하는 말로 표준어이다.
 ④ ㉣: ‘(속되게) 어색하고 민망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표준어이다.
 ⑤ ㉤: 문학 작품 따위에서, ‘날개’를 이르는 말로 표준어이다.

97. <보기>를 바탕으로 줄임말의 양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 < 보 기 > —

최근 시청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보는 방송 프로그램의 명칭을 줄여 말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내 딸 서영이’를 ‘내딸서’라고 줄여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제목에 쓰인 각 어절의 앞 글자만 따서 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줄임말의 양상에는 제목에 쓰인 앞 어절의 첫 글자와 뒤 어절의 전부를 따서 말을 줄인 것, 제목에 쓰인 앞 어절의 첫 글자와 뒤 어절의 끝 글자를 따서 말을 줄인 것, 제목에 쓰인 앞 어절의 첫 글자와 다음 글자를 따서 말을 줄인 것이 있다.

- ① 불후의 명곡 → 불후 ② 남자의 자격 → 남격
 ③ 닥치고 패밀리 → 닥패 ④ 신데렐라 언니 → 신언니
 ⑤ 해운대 연인들 → 해운대

98. <보기>는 북한에서 ‘말 다듬기 운동’의 결과로 제시한 사례들이다. 옳은 설명끼리 짝 지은 것은?


< 보 기 >

말 다듬기의 사례	설 명
과식(過食) → 지내먹기	㉠ ‘지내’는 남한에서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부사이며, ‘너무’의 의미를 지닌다.
괘도(掛圖) → 걸그림	㉡ 단어 형성 방식의 차이 때문에 남한에서는 ‘걸그림’을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체온계(體溫計) → 열재개	㉢ ‘열재개’의 ‘-개’는 ‘지우개, 텃개’에서와 같이 ‘도구 또는 기구’의 의미를 지닌다.
스타킹(stocking) → 양말 바지	㉣ 북한에서는 한자어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외래어를 다듬을 때 한자어를 쓰지 않는다.
도넛(doughnut) → 가락지빵	㉤ 대상의 형태에 주목하여 다듬은 말이며, ‘가락지’는 남한에서는 비표준어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99. <보기>의 근대 신문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世昌洋行 製物포

세계에 데일 죠흔 금계랍을 이 회사에
 회샤에서 또 새로 만히가져 외
 셔 파니 누구던지 금계랍 장스
 날고 심흔이논 이 회사에 와서
 사 거 드면 도매 금으로 쓰게 주
 리라

世昌 洋行 製物포

세계에 데일 죠흔 금계랍을 이 회사에
 셔 또 새로 만히가져 와서 파니 누구던지
 금계랍 장스하고 심흔이논 이 회사에 와
 셔 사 거 드면 도매 금으로 쓰게 주리라.

<독립신문 1897. 12. 9.>

- ① ‘데일’을 통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또’를 통해 어두에 합용병서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장스’, ‘쓰게’를 통해 표기에 ‘·(아래 아)’가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데일’, ‘회샤’를 통해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가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죠흔’, ‘심흔이논’을 통해 재음소화 표기가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0.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은?

— < 보 기 > —

이제까지의 국어 순화가 정부나 전문가 집단에서 주도하는 하향적, 일방적, 타율적인 방식이었다면,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통한 국어 순화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적, 쌍방향적, 자율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순화어는 일반 국민들의 언어 감각에 더 잘 맞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순화어를 자연스럽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순화어의 정착에 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통해 만들어진 순화어는 280여 개인데, 이들 순화어 중 일반 국민에게 널리 쓰이는 말은 한두 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순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순화어의 정착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 | | | |
|------------------|-------------|--------------|
| ① 스마트폰 → 똑똑(손)전화 | ② 리플 → 댓글 | ③ 랜드마크 → 마루지 |
| ④ 헤드셋 → 통신머리띠 | ⑤ 넷북 → 손누리틀 |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적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